

李退溪와 熊本實學派**

友枝龍太郎*

오늘 한국의 諸賢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저에게 있어 이보다 더한 광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된 것은, 실은 지난 5월 말일의 「근세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朱子學과 李退溪」 국제학술회의에서 귀국에 있어서의 퇴계를 중심으로 한 朱子성리학의 연구가 성대한 것에 놀람을 금치 못했던 까닭입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의 朱子學에 달라붙어 공부해 오던 저에게 있어, 귀국의 朱子學의 양상을 구명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될 수 없다는 자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분을 가지게 되어 있는 터에, 퇴계학연구원 대표이신 李東俊 선생으로부터 「한국에는 문헌도 많이 있고, 도산서원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번 나와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誘因이 되어서 貴國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이 渡韓을 機緣으로 하여, 내가 지금까지 해 온 朱子 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에 있어서의 과거의 朱子學 수용의 양상과 그 전개를 탐구하고, 그 특수성을 밝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곳이었던 귀국에 찾아와 보니, 白人에 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 모든 점에서 위화감이 없이 다시 더 없는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따뜻한 정에 의한 것이라고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演題에 표시한 것과 같이 저의 鄉黨의 儒先과 李退溪 선생과의 사상적 연관을 말씀올리어, 주어진 책무를 다할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 전 廣島大 교수(작고)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15호(1977) 게재논문

다.

제가 李退溪 선생의 이름을 안 것은 橫井小楠 유고를 대학시대에 읽은 그때부터입니다. 小楠은,

明一代의 眞儒는 薛文清이라 하겠습니까. 그 밖에 조선의 李退溪가 있는데, 퇴계가 도리어 文清보다 위라고 생각되며, 古今絶無의 眞儒는 朱子 이후 이 二賢이 있을 뿐입니다.(橫井小楠遺稿·本莊一郎 앞 130쪽)

라고 하여 지난날에 있어서의, 朱子學을 중심으로 한 귀국과 일본과의 문화교류의 친밀함을 알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본인과 귀국 성리학과의 관계는 제2차대전 종료후 郷里로 돌아가 있을 때, 우연히도 人吉고교를 방문하여 조선판 『朱子語類』, 『性理大全』, 『困知記』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특히 『朱子語類』가 明의 成化刊本을 받아 완전하게 序, 跋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고서, 이로부터 『朱子語類』의 문헌조사를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이 경위는 줄져 『朱子の 사상 형성』의 부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북경으로부터 구입한 『朱子語類』는 淸刊通行本으로, 成化의 序, 跋이 전혀 없었고, 또 和刻本도 缺落이 있어 충분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제가 경탄한 것도 까닭없는 일은 아닙니다. 나의 朱子연구를 촉진시켜준 機緣의 하나는 실로 조선판 『朱子語類』의 발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橫井小楠(1809~1869)은 明治2년에 자객의 손에 쓰러졌습니다만, 舊思想 속에서 성장하면서도 일본의 근대화를 先取한 것과 같은 사상의 소유자로서, 바로 이 小楠이 마음으로부터 퇴계를 존숭하고 있었습니다. 小楠은 이른바 道學을 주체적으로 體認受容하여, 章句에 얽매이지 않고 活見을 열어 世務에 시행할 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31세 時에 熊本藩으로부터 江戸遊學을 명받고 천하의 준걸들과 교류하였으나, 酒失 때문에 귀국을 명받아 70일 동안 禁足の 刑에 服하고, 문을 닫고 독서하여 程朱의 書에 沈潛하고 陽明의 書의 불가함을 간파하여, 자기의 과오에 반성을 가하고 自戒에 힘썼습니다.

「少壯貴意氣，故爲驚俗行，一旦悔往事，恍惚見天性，書卷知道味，善端加畏敬，寄語故舊人，忽笑持嚴正.(小楠傳上, 66頁)」

「嘗讀朱子書，如有會其旨，致知固不輕，所重在實履，靜裡養間氣，動處察天理，須臾不離道，至此是達士.(同上, 67頁)」

「靜裡養間한 氣」는 存養, 「善端加畏敬」 「動處察天理」는 성찰, 「致知」는 知, 「實履」는 行으로서, 이것은 朱子나 퇴계를 稱揚한 大塚退野의 학설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吾慕退翁學，學脈淵源深，洞通萬殊理，一本會此仁，進退任天命，從容養道心，嘆息百年久，傳習有幾人.(同上)」

이라 읊었습니다. 이 「退翁」은 大塚退野(1677~1750)인데, 小楠보다 백년 정도 앞서 나온 熊本の 儒者입니다. 小楠은 뒤에 「退翁」을 「紫陽」에, 「百年久」를 「千秋久」로 고쳐 朱子로 하고 있습니다만, 「百年久」를 「世年久」로 하면 이것을 퇴계에 딸 수도 있습니다. 「一本會此仁」의 仁에 대하여 退野는

「仁者，心之德而具萬理.(孚齋存稿拾遺, 肥文叢4, 666頁)」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퇴계는 仁說圖의 후기에서

「大學傳曰，爲人君止於仁，今欲求古昔帝王，傳心體仁之妙，蓋於此盡意焉.(聖學十圖, 仁說圖後記)」

라고 하고, 또 自省錄에서

「心爲太極，……此理無物我，無內外，無分段，無方體。方其靜也，渾然全具，是爲一本，固無在心在物之分。及其動而應事接物，事事物物之理，卽吾心本具之理。但心爲主宰，各隨其則而應之。……但又云，所謂一本者，

指理之總腦處 非指在心者. 夫既曰只是一理, 則理之總腦, 不在於正, 更當何在. ……謾曰只是一理, 則恐於一本萬殊處, 猶有所未瑩也.(自省錄, 答鄭子仲)」

이라고 하여 「一本」 「一理」를 주체적인 「心」에 대고 「傳心體仁의 妙」를 역설하고 있음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小楠은 退野를 통하여 퇴계의 사상에 파고 들고 그것을 또, 朱子에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 朱子—退溪—退野—小楠으로 전하여지는 理學心學의 특색이 발견됩니다. 小楠은 또 學校問答序에서

「天地 사이에 오직 이 一理뿐이니, 인간의 有用이 千差萬變으로 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 歸宿은 心の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心을 근본으로 하여 미루어 남에게까지 미치고 萬事의 政이 서로 이루어져, 本末 體用 彼是의 변화는 있어도 二로 떨어져나갈 이치는 없습니다. 이 二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함이 一本으로부터 萬殊에 이르고, 萬殊로부터 一本으로 귀착하는 도리입니다.(遺稿, 4頁)」

이라 하고 있고, 특히 小楠의 경우에는 형이상학적 理體, 太極의 一理 一本이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現實日用的 사회에 있어서의 萬殊萬變을 「心の 一」로 하여, 이것을 「一本」으로 포괄하는 양상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朱子도 물론 「心爲太極」이라 하고, 明德이나 心을 「衆理를 갖추어 萬事に 응하는 것」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歸宿을 「心の 一」로 하는 小楠의 사고는, 퇴계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며, 특히 「이 마음을 근본으로 하여 미루어 사람들에게 미쳐나가 모든 政事가 이루어진다」고 한 부분은 퇴계의 「存心은 政事を 내는 근본」(自省錄, 答黃仲舉)에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小楠은, 大塚退野에 대하여

「拙藩의 先儒 大塚退野는 李退溪의 자성록을 보고서 程朱學의 의미를 깨닫고, 나이 28세에 脫然히 陽明學을 끊고 정주학으로 기울어졌습니

다.(遺稿, 本庄一郎에게. 131頁)」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小楠이나 元田永孚가 다같이 퇴계의 자성록과 朱子書節要를 잘 읽고 있어서, 小楠 자신이 朱子-退溪-退野의 道學의 계보를 계승하는 者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小楠은 공리에 흐르지 않고, 禪에 흐르지 않고, 窮理純熟할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此道未聞一躍求, 不助不長自悠悠, 卽今鬢髮如斯綠, 修道同爲白首頭, 不流功利不流禪, 大丈夫心希聖賢, 盡得終生堅苦力, 欲披雲霧見青天.(遺稿, 送池變熊藏歸柳川, 874頁)」

그런데 퇴계는 自省錄, 答南時甫에서

「聖言上達不言悟, 功在循循積久中, 既說無爲便說誤, 如何自說落禪空, 窮理須就日用平易明白處, 看破教熟, 優游涵泳於其所已知. 唯非著意非不著意之間, 昭管忽忘, 積之已久, 自然融會而有得. 尤不可執捉制縛以取其速驗也(自省錄, 答南時甫).」

라고 述하며 禪空에 떨어지는 것을 옳지 못하다 하고, 非著意非不著意의 사이에 昭管하여 있음이 없이 점진적으로 窮理積久하여 자연히 融會할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 점 小楠의 시는 퇴계와 연관을 갖습니다. 小楠의 선배 退野도,

「먼저 虛心平氣하게 근본을 이루는 길이 肝要합니다. 여기에 표나기를 서두르지 말고, 得處에 固滯하지 말고, 의심나는 곳을 항상 마음에 두어 생각을 깊이 하여, 新奇可喜의 설을 좋아하지 않고, 고인의 평이한 설에 따른다. 이같은 의사를 갖춘 후에 格物의 功을 쓰는 것입니다. 그 功用的 방법은 一理에 만나면 그 理를 推究 融釋 脫落한 후에 또 다른 일을 窮究한다. 그것도 또 이와 같이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으면 積累의 공에 의하여 脫然貫通의 妙處에 이르게 됩니다.(孚齋存稿 2, 肥文

叢, 611頁)」

라 하고 있어 퇴계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延平答問을 이어 받아 體認自得의 窮理融釋을 설한 퇴계를 退野, 小楠이 계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小楠은 유달리 퇴계를 존숭하여 本領定立의 문제에 대하여 두번씩이나 자성록 冒頭의 말을 인용하여 스스로 자기 소견을 더 첨가하여 제자에의 贈言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退溪曰, 第一須先將世間窮通得失榮辱(利害), 一切置之度外, 不以累於靈臺. 既辨得此心, 則所患(蓋)已五七分休歇矣. 學者當先立本領, 本領已立, 斯始可居之處, 所謂本領者, 在李退溪之此言, 而真心會得, 洒然脫却, 則順地逆境無不適而泰然焉. 葦北德富子, 將歸其鄉, 餘告之以此言, 更述其所以然者, 以爲贈言如此.(遺稿, 723~4頁).」

세간의 窮理 得失 榮辱 利害를 모두 置之度外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體認해 보면 참으로 그대로인 것이어서, 野에 내려와 野人の 처지가 되면 누구나 이 感慨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단순한 지식상의 이해를 물리치고, 참으로 본령을 터득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本領은 仁義禮智의 性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성현이 사람에게 지시하신 性命의 理를 사람의 마음에 固有하고 있다고까지는 알고서도, 진실로 고유하고 있음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본심의 感發에 느끼어 참으로 이것이로구나 하고 마음에 진실로 理會한 것이 본령의 理會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같이 理會할 때에는, 세간의 窮理 得失 榮辱 등의 일체의 外欲을 실로 度外的 일로 생각하여 절대로 이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 없다. 이런 경지에서 舜何人, 我何人의 뜻이 脫然히 일어나 이 학문에 딱 들어맞고 日用事實의 위에 나아가 致知力行의 수행이 되는 것이다(遺稿, 944頁).

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退野도 마찬가지로여서

「所謂爲己者，欲得于己焉。故於其初，身外之事，榮衰休戚毀譽得喪，一切置之度外，不容其心，而當見其在己者爲何物。既知在己者爲何物，則如飢食渴飲，不可有絲毫爲人之意也。如此而始可共學道矣。(孚齋存稿1, 喻友, 肥文叢, 600頁)」

라고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退野, 小楠이 退溪와 일체가 되어서 본령의 정립에 성실하게 탐구하고 있는 모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小楠의 실학은, 우선 먼저 진심을 會得하고 본령을 터득한다는 주체적 자각의 학문이었습니다. 따라서 小楠에 있어서는 학문이란 方寸의 수행이고, 그리고 그같은 방촌의 양심을 擴充하여 日用사물 위에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문의 뜻(義)은 어떠한 것인가. 나의 마음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고인의 이른바 學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면, 완전히 나의 方寸(마음)의 수행이다. 양심을 확충하고 일용사물의 위에서 功을 쓰게 되면, 전부가 學이 아닌 것이 없다. 부자 형제 부부의 사이로부터 군주를 섬기고, 친구와 사귀고, 현자에 가까이 하고, 대중을 사랑하는 것이다. 百工技藝 農商의 사람과 서로 말하고, 山河草木鳥獸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卽하여 그 理를 解하고, 그 위에 책을 읽어 고인의 事歷成法을 생각하고 義理의 무궁함을 알고 孜孜히 쉬지 않고 우리 마음을 날로 靈活하게 한다. 이것이 곧 학문이요, 修行이다. ……후세의 학자는 일용의 위에서 깨달음이 없이, 오직 책에만 나아가 理會한다. 이것은 고인의 배워야 할 것이 아니고, 이른바 고인의 노예라고 하는 자이다.(遺稿, 932쪽)」

그리하여 여기에는 朱子 大學或問에 있어서의 窮理의 중시가 보여집니다.

小楠에 있어서의 體認窮理의 學은, 學校問答書에서는 修己治人·學政一致·朋友講學·文武兼修로 되고, 나아가 仁義, 忠誠, 誠意에 근거한 文武一途論이 전개되고, 또 天地仁義의 大道에 근거한 夷虜應接 大意로

되어 大國의 恣意를 허용하지 않는 國防論을 서술하고, 陸兵問答書에서는 어떻게 서양의 銃砲術器械를 섭취해 나가느냐는 데에 변증법적인 사색도 보여, 일본 근대화의 선구적 역할을 한 양상이 보여집니다. 다만

「堯舜으로 하여금 當世에 살게 한다면 서양의 砲艦器械百工의 精과 기술의 功이 빨리 그 功用을 다하여 당세를 경론하고 공부를 넓혀 주실 것이, 서양이 미칠 바가 아니다. ……三代治道の 格物에 비해 宋儒의 格物은 그 뜻이 이르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一草一木 모두 理가 있으니 모름지기 이것을 格하여야 한다고 들리기는 하나, 이것도 초목이 生殖을 완수하여 민생의 用에 달하는 것과 같은 격물로는 생각되지 않고, 무엇에도 理를 궁구하여서의 격물로 들린다.(遺稿, 沼山閑話, 923쪽)」

에 보이듯이 窮理技術의 문제를 堯舜 3대에 연관시켜서, 혹은 서양의 민주주의를 찬미하여 「위싱턴」을 서양의 堯舜이라 하고, 宋儒의 窮理學을 「理를 연구하여서의 格物」이라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구명한 바의 朱子の 궁리학의 성격에서 따져 본다면, 아무래도 小楠의 인식 부족의 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아마도 서양의 충격이 대단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小楠의 감화를 받은 元田永孚 선생은

「程朱의 學은 조선의 李退溪에게 전하고, 退野 선생이 그(李退溪) 所撰의 朱子서절요를 읽고 초연히 얻은 바가 있다. 나는 이제 退野의 學을 전하여 이것을 금상황제에게 奉上하였다.(小楠傳上, 所引 元田永孚)」

라고 하여 程朱—退溪—退野으로 전하여지는 학통 아래서 明治의 교육 방침을 정립하였습니다. 例의 敎育勅語는 인륜의 理法의 실현과 문명기술의 섭취를 설하여 세계 평화를 염원한 것으로서 결코 침략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에 말한 바, 중국, 한국, 일본에 전하는 理學心學을 마음

의 고향으로 하여 연구를 진전시켜 나갈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江戸시대에 수용된 퇴계의 體認自得의 學은 우리 일본의 전통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太極論, 理氣論 같은 순수철학에 속하는 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부길웅 선생 이외에는 별로 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일본에서는 충분히 해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일찍이 『朱子の 사상형성』을 완성한 나 자신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우선, 퇴계를 비롯하여 그 주변을 탐구하고, 퇴계의 사상은 어떻게 전개하였으며, 봉우 문인과는 어떻게 교류하였는지를 구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계를 알기 위하여는 그 전후좌우의 對者를 알지 않으면 아니되고, 이같은 방법—즉 제가 朱子를 분석한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성리학의 심오함을 理解體得해서 현대의 조류 속에 우리의 전통 사상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다하고자 생각하는 바입니다. 퇴계의 「無極而太極」, 「理發氣發」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思索體認하고 있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가 이제까지의 和刻本에 의하고 있었던 터여서 의문이 잔뜩 남아 있습니다. 저는 一老學徒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정주학에 있어서의 의리의 體認 실천과 학문 窮理의 情熱에 있어서는 朱, 李, 大, 橫, 元의 諸先生에 배워서, 쓰러진 뒤에 그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한국에 있어서의 諸賢의 敎示를 염원하여 마지 않습니다. 퇴계에 관계가 있는 七絶 두 수를 읊고 본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丙辰歲晚

得失窮通都付天 求真致察豈難全
西齋歲盡鍾聲到 默坐澄心自酒然

丁巳訪韓

退翁心學夙東傳 往世儒先稱厥賢
欲訪振鈴鳴鐸地 飛鵬忽到溪陽天

